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군산에서 사회공헌 기금 전달

성금 5000만원 군산지역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시설보수·다문화가정지원 등에 쓰여져

한국지엠주식회사 한마음재단이 20일 군산시청에서 전북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5000만원으로 군산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보수, 장학금,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문화가정지원, 김장김치담금행사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감사한다"면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향토기업으로 군산의 일부였다"면서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지 22년이 지난 지금, 지엠 군산공장의 아픔이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홍순경 한국지엠대의협력담당장은 "회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마다 진행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접을 수 없어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기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김장김치를 담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고, 의료비, 장학금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차량 기증 복지시설 수리 및 물품 지원, 긴급 구호 등 공익단체 지원사업과 임직원 자원봉사



20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이 전북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 기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넉넉봉사회'는 희망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군산 해오름복지재단을 한달에 한번씩 방문해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100여명이 거주하는 직업 재활시설로 봉사회는 지난해부터 매월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도 퇴직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섬에 따라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구이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펼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모삼중)는 20일 구이주간보호센터에서 5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웃음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웃음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에 함께한 14명의 뽀뽀한 웃음봉사단(단장 국인숙)은 흥겨운 노래와 율동을 펼쳤으며, 구이지역사랑봉사단과 연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를 대접해드리면서 훈훈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날 최모(80)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노래와 율동으로 함께하고, 떡과 과일까지 대접해주니 너무 고맙고 즐거웠다"며 뿌듯해 했다.

한편, 모삼중 센터장은 "웃음치료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맞춤형 연합 봉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 좋은이웃들은 최근 진안읍 관암마을에 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공모사업에 진안읍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가구를 선정해 진행된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참여로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장모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진안읍지회 회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진안읍사무소, 반월복지재단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봉사자 18명이 참가했으며,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자들은 집안에 가득 쌓여있던 쓰지 않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노후 된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

장모씨는 "깨끗해진 집 곳곳을 보니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관절염 자조 관리 수중운동교실 호응

순창군은 관절염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예방을 위한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55세에서 75세 퇴행성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삼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된다.

하반기 관절염 자조 관리 수중운동교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주 2회 진행중이며 10월 23일까지 총 12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상반기에도 30명을 대상으로 수중운동교실을 마무리해 호평을 받았다.

수중운동교실은 체중에 부담이 없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약해진 하체 체력을 강화하고 신체 균형 발달 등 대상자들의 건강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물속에서 균형감과 골격운동, 신진대사와 근력강화, 지구력과 유연성 기르기 등 모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해 관절염 치유 효과는 물론 재미도 있어 인기가 높다.

수중운동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063-650-525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 변산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간담회

부안군 변산면(면장 기세울)은 최근 부안군보건소와 협조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건강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최근 어르신 건강 위험으로 도마에 오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알찬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도 진드기 등 해충이 달라붙지 않도록 기피제를 지급해 안전한 활동에 도움을 보냈다.

또 그동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건설적인 활동방향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어르신들의 참여 만족감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농협 부녀회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 가져

김제농협 부녀회(회장 박승남)는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의 후원을 받아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가져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일 김제농협 부녀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김산동·죽산면을 시작으로 26일 요촌동·신봉동, 8월 2일 교월동 14일 부랑면을 마지막으로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마쳤다.

반찬나눔 행사는 김제농협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여름 등면별 부녀회에서 직접 반찬을 조리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가구, 노인회관 등에 전달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80여명의 마을부녀회장이 반찬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시원한 여름 김치를 담아 360여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다.

이정용 조합장은 부녀회를 통해 실시한 반찬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폭염속에서도 나눔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부녀회장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앞으로도 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나눔이 넘치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